

# 甫吉島 芙蓉洞 洗然亭庭園의 空間構成 原理에 관한 研究

崔銀晶\* · 洪光杓\*\*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Spatial Organization of the Seyeon-jong Garden, Buyong-dong Bogil-do

Choi, Eun-Jung\* · Hong, Kwang-Py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

### ABSTRACT

When we put a construction on the space organization form of Seyeon-jong garden through a consequence of drawing analysis, we were able to certify that a certain space construction principle was applied as following.

First, the arrangement and organization of space construction element embodied systematic order by clearing the character of space, and heightening the degree of cognizance with the means of functionality, scale, height, decorationability, an inclination of artificiality and nature, systemetic approachability.

Second, the space construction element of Seyeon-jong garden pursued a harmony of human work and nature for creating a various atmosphere and visual quality.

Third, Seyeon-jong garden constructed the space by establishing the measurement of human scale that introduced a conception of near, middle, distant view on the visual angle.

Forth, Yun go san introduced the natural shape of 'The song of five friends' as a construction element, and represented the symbolism that he had seeked for through the arrangement method, christening, composing technique of the space construction element for expressing ideal space which is described in 'The four season song of fisherman' spatially at Seyeon-jong garden.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Yun go san created his own ideal space that he longed for at Seyeon-jong garden with applying fixed design system, and he realized his will that he strived to form a complete whole in perfect harmony.

## I. 序 論

### 1. 研究背景 및 目的

우리 고유의 傳統造景樣式이 나타나는 여러 대상 가운데에서도 특히 別墅庭園은 上流階層 構成員들의 고유한 情緒의 風趣가 담겨있는 品格 높은 場所가 아닐 수 없으며, 韓國傳統 造景樣式을 대표할 수 있는 事例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 가운데서도 孤山 尹善道에 의해 조성된 甫吉島 芙蓉洞 別墅庭園은 孤山 尹善道の 自然觀이나 藝術性으로 비추어 볼 때 그 가치가 대단한 造景作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甫吉島 芙蓉洞 別墅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못하며,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孤山 尹善道の 詩書分析和 芙蓉洞 別墅의 物理的 實體에 대한 命名分析을 통해 그의 思想이나 自然觀을 살피고자 하는 國文學的 觀點에서 접근한 몇몇 연구와 發掘調査를 통하여 단순히 物的現象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造景學의 側面에서 볼 때 甫吉島 芙蓉洞 別墅는 物理的 現象에 대한 一次元的 分析만으로는 그것이 지닌 造營의 意味를 분명히 解釋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甫吉島 芙蓉洞 別墅 가운데에서도 人工性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된 洗然亭 庭園을 對象으로 그것의 形式과 內容에 대한 分析 및 解釋을 통하여 孤山 尹善道の 造營觀이 洗然亭 庭園에 어떻게 具顯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 2. 研究의 方法

#### 1) 調査方法

文獻調査에서는 세연정 정원의 景觀特性和 構成技法을 造營 당시의 관점에서 糾明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詩文이나 古文獻에 나타나는 景觀描寫 중에서 自然現象에 대하여 노래하였거나, 造營者의 空間의 體驗이나 景觀要素에 대한 느낌을 描寫한 것 또는 造營者가 직접 自然物이나 人構造物 등에 命名하였거나 그것에 관해 언급한

것 등을 주로 추출하여 정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리고 造營者의 行狀과 造營觀의 把握 역시 造營者와 관련된 詩文과 行狀記錄 등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現地調査는 洗然亭 庭園의 空間構造와 構成要素와 配置 등 物理的 側面을 살피고자 수행된 것으로서, 對象地를 여러차례 踏查하여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찾아 확인하였다. 동시에 이루어진 사진촬영은 芙蓉洞 別墅의 全體構造를 살피기 위해 景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서 全景觀을 촬영하였으며, 景觀構造의 側面의 자료로서 이용하였다.

#### 2) 分析方法

##### 가. 芙蓉洞 別墅의 構成體系 分析

洗然亭 庭園의 空間構成原理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芙蓉洞 別墅 全領域의 空間構成體系가 밝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單位空間이 지닌 立地性 및 空間構成과 이것들의 構造的 相關性을 分析하였다. 여기에서 각 單位空間의 立地의 特性 및 空間構成은 甫吉島 지역의 1/25,000 地形圖를 이용하여 각 空間의 位置를 파악한 후 〈甫吉島遺蹟調査報告書〉등 기존의 調査報告書에 수록된 平面圖나 配置圖를 토대로 각 空間의 構成要素와 그것들의 配置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單位空間과 관련된 詩文이나 命名分析으로서 각 單位空間의 性格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圖面分析을 통하여 그 單位空間들과 自然環境과의 物理的 相關性 및 視覺構造의 相關性을 밝혀 냈다. 여기에서 圖面分析은 각 單位空間의 位置를 파악하였던 1/25,000 地形圖上에서 芙蓉洞 地域의 空間構造의 中心點을 찾은 다음, 芙蓉洞 地域의 視覺的 指標物이 될 수 있는 東西南北의 각 산봉우리(格紫峰430.3m, 廣大峰311m, 案山367.7m, 북쪽의 山280m)를 연결하여 그 中心點을 기준으로 가능성 있는 構成體系를 作圖하였다. 그리고 芙蓉洞 別墅 全領域과 洗然亭 庭園과의 相關關係를 밝히기 위해 각 單位空間과 주요한 自然環境(格紫峰, 바다藏在島)을 연결하는 가능성 있는 線을 찾아 作圖하였다. 한편, 視知覺의 相關性은 각 單位空間에서 펼쳐지는 景觀을 可視

限界까지 사진 촬영하여 그 視覺的 정도를 分析하였다.

#### 나. 洗然亭 庭園의 空間構成 形式分析

洗然亭 庭園의 空間構成에 대한 形式分析은 洗然亭 庭園을 構成하고 있는 各 構成要素와 그것들의 配置 및 相關性을 찾아므로써 이루어졌다. 構成要素는 人爲的인 것과 自然的인 것으로 구분하여 形態, 規模, 機能別로 分析하였다. 그것들의 配置 및 相關性은 洗然亭 庭園의 가능성 있는 中心點을 설정하여 1/400로 작성한 <洗然亭 庭園 復元 配置圖>를 토대로 그 中心點을 기준으로 地形의 變換點이나 各 空間構成要素의 中心點 그리고 動線 등을 연결하는 意味있는 선들에 대한 作圖를 통하여 圖上分析하였다.

#### 3) 空間構成原理 解釋

洗然亭 庭園의 空間構成原理은 空間構成形式을 圖上分析하여 나타난 結果를 解釋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求心的 優越性, 空間構成要素들의 貫入과 配置技法, 空間의 比例的 次元, 物理的 實體의 命名에 나타난 象徴的 意味나 表現등의 관점에서 解釋하였다.

## II. 洗然亭 庭園의 形成과 成立背景

### 1. 洗然亭 庭園의 形成

洗然亭 庭園이 형성되게 된 특별한 이유는 洗然亭을 中心으로 형성된 이 領域의 景觀性이 우수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洗然亭의 命名에서 엿볼 수 있는데, 尹孤山이 亭子의 堂號를 특별히 洗然 이라고 붙인 것은 洗然亭의 주변 景觀이 물에 씻은 듯 깨끗하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곳이라는 意味를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송화진, 1986 : 111) 즉, 尹孤山의 입장에서 볼 때 洗然亭 庭園이 立地하게 된 이 領域의 場所性이 곧 그의 景觀哲學을 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洗然亭 庭園은 우리나라 造景遺蹟 중 특이한 곳으로서, 山水間에 은둔했던 선비의 別

墅庭園으로는 規模가 크고 화려하며, 人工性이 강하게 나타나는 場所性을 보이고 있다.

## 2. 成立背景

### 1) 時代的 背景

#### 가. 政治 社會的 背景

洗然亭 庭園이 형성되었던 시기는 政治的 不安과 거둬지는 兵亂으로 집권층 내부에는 분열, 대립현상이 짙어지고 훈구사림뿐 아니라 儒敎理念 및 政策上의 대립등이 얽혀 黨爭이 치열해지게 되는 조선시대 중반에 해당된다. 이러한 朝鮮時代의 政治·社會的인 배경은 결국 別墅 庭園의 출현을 성립시키게 되는데, 이 시기의 別墅庭園으로 대표적인 것은 전남 담양의 獨守亭, 瀟灑園, 鳴玉軒, 전남 화순의 臨對亭, 전남 진도의 雲林山房, 경남 함안의 何換亭, 경북 영양의 敬亭 瑞石池園 등을 꼽을 수 있으며 甫吉島 芙蓉洞別墅 역시 같은 맥락에서 造營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思想 文化的 背景

骨肉相爭·士禍·分黨 및 戰亂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不安과 不條理한 상황으로 인하여 朝鮮時代의 지배적인 哲學은 隱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나오는 儒家的 隱逸은 絶對的 厭世가 아니라 道가 行해지고 秩序가 回復되면 다시 經世濟民을 위해 出現, 出仕를 意味하는 것이다.(최기수, 1989:52) 그래서 이 당시에는 政治에 超然하면서 立身揚名하려는 풍조가 일었고, 山水自然에 소요하며 초세적 隱逸의 생활을 즐기는 隱者가 많이 나왔으며, 더러는 黨爭에 연루되어 고배를 마신 朝臣들도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宦海荊棘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은 山林逃避의 隱遁生活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자신을 逃避의 隱逸으로 자처하지 않고 超世的 隱逸임을 표방하였다.(유병립外, 1989 : 5)

### 2) 孤山 尹善道の 造營觀

#### 가. 價値觀

尹孤山은 검소함을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일차적 生活觀으로 삼았으며, 小學을 위주로 공부하여 아랫사람에게도 관대했다. 특히 孤山은 自然

에의 沈潛·음율상의 玩賞·飲酒逸樂의 風流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山水間 바위 아래 茶室을 짓고(정재훈, 1991:47) 林泉閑興을 즐기며 만족하고 피상적으로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닌 音律의 原理를 통달했으며, 그 예술성을 터득하기도 하였다. 또한 술을 마셔도 절도있게 마실 것을, 춤을 추어도 예절을 지키면서 추어야 됨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尹孤山의 價値觀은 自然·音樂·飲酒를 상호조화시켜 昇華(정익섭, 1987: 75-82)되고 詩畫된 그의 文學性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 나. 自然觀

尹孤山은 自然과 벗해 그 아름다움을 노래로 표현하여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尹孤山의 自然觀은 金鎖洞에서 지은 '山中新曲'과 물·돌·대나무·소나무·달을 벗삼아 노래한 '五友歌', 甫吉島에서 지은 '漁父四時詞'등에 잘 나타나 있다. '五友歌'와 '漁父四時詞'를 통해 그의 自然觀을 살펴보면, '五友歌'에서 물은 청정한 人間의 표상으로, 바위를 절대의 세계에 안정되어 있는 성인으로, 소나무를 隱逸世界로 비유된 九泉 地下에 숨어있는 뿌리의 끈음으로, 대나무는 隱逸者로 비유하여 人間社會의 功名이나 功業에 마음을 두지 않는 虛心人間으로서, 달은 絶對的 眞理로서의 象徴的 意味를 부여하였다. 즉, 尹孤山에게 있어서 五友는 자신의 心象이요 그의 人生觀이 藝術로 표현되었음을 시사한다.(김준호, 1987: 20-30) 한편, '漁父四時詞'는 孤山이 3차 甫吉島 入島後인 65세때의 작품으로 자신의 體驗과 認識을 작품화하였던 것으로, 여기서 그는 自然發露의 아닌 計劃되고 意圖的인 '作興'으로서 理想化된 空間을 꾸미고자 회귀하였다. 즉, 이것은 自然을 理想的인 空間으로 드러나게 함으로서 尹孤山 스스로 엄격한 工程에 의하여 自然을 組織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造作에 의해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自然 위에서 自然과의 친화감을 읊었던 것이다.(정병헌, 1988: 21) 결국 尹孤山은 自然을 客觀的으로 애호하는데 그치지않

고 自然과 渾然一體되는 主觀的 自然觀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尹孤山은 자신이 가진 自然에 대한 이러한 觀照와 趣味意識을 직접 空間에 옮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丙子胡亂으로 인하여 자리잡은 甫吉島 芙蓉洞 別墅인 것이다.

### Ⅲ. 芙蓉洞別墅의 構成體系와 洗然亭庭園

#### 1. 芙蓉洞別墅의 構成體系

##### 1) 構成因子

尹孤山의 自然에 대한 觀照와 趣向이 空間으로 具體化된 別墅庭園이 입지한 甫吉島는 산지가 발달된 수려한 自然景觀을 지닌 곳으로, 그 중에서도 芙蓉洞은 산이 병풍처럼 南과 北으로 둘러싸여 空間的으로도 아늑한 곳이다. 이러한 自然環境을 바탕으로 형성된 芙蓉洞 別墅는 世俗의 名利를 초월한 隱遁者의 世界로 자신을 修養하고 弟子를 기르는 修身과 教育의 場이었던 樂書齋 曲水堂 領域과 芙蓉洞 전체를 내려다 보며 神仙처럼 소요하고 茶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던 洞天石室 領域 그리고 청정한 선비의 세계이면서 연회와 유희의 장소였던 洗然亭 領域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風水說에 입각하여 背山臨水의 原則에 의해 坐向을 결정해 왔으며 여기에서 背山한다는 것은 山으로부터 내려오는 生氣를 받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臨水는 入水와 出水 중 入水에 의해 坐向이 영향을 받게 되고, 入水口와 背山의 向에 제한을 주며 背山의 向과 入水의 向이 같은 경우 이 한 방향만을 제외한 모든 방향에서 坐向이 가능하다.(박준성, 1988: 83) 芙蓉洞 別墅는 이와 같은 風水地理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景觀構造의 측면에서 坐向을 결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각 領域에 도입된 주요구조물의 坐向을 살펴보면, 樂書齋가 특별히 북향<sup>3)</sup>하고 있는 것은 主山인 格紫峰 아래의

1) 정동오는 북쪽의 한양에 있는 王仁祖의 안부를 염려해서 좌향을 그렇게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용동 골짜기를 따라 부는 강한 해풍을 피하는데 적지로서 북쪽의 동천석실이 있는 남향의 산 기슭보다는 경사가 완만하여 농토를 개척하기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정동오, 1988: 176)

樂書齋가 龍머리로서 穴로 들어간 形局하고 있고 背山인 格紫峰이 南向이고 東南西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물이 東西에서 入水·出水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樂書齋가 북향하게 된 또다른 이유는 自然環境 與件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樂書齋는 凸트인 空間을 앞에 두기 위해 坐向을 이렇게 결정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樂書齋의 또다른 人工構造物인 靜成堂 역시 북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洞天石室의 坐向은 南向으로서 格紫峰과 樂書齋와 연결되는 일직선 축상에 놓여 있다. 이것을 관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格紫峰을 朱子로서 추앙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風水說의 背山臨水의 측면에서 南向 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景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視覺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景觀을 감상할 수 있도록 向을 설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洗然亭의 坐向은 사방으로 트여 정확히 坐向을 설정하기는 힘들지만 亭子로 오를 수 있는 곳을 정면으로 보면 서북향의 坐向을 가진다. 이것은 아마도 格紫峰과 바다를 염두에 두었음이 아닌가 한다.

## 2) 空間構造

甫吉島는 尹孤山이 定着하기 전에는 無人島였으나 尹孤山이 이곳의 自然을 면밀히 관찰하고 자신과 결부시켜 관계를 맺음으로서 意味있는 場所가 되었다. 즉, 芙蓉洞 別墅는 수려한 自然景觀과의 관계 속에서 意圖적으로 조성되어진 곳이다.<sup>2)</sup> 기록에 의하면 尹孤山은 芙蓉洞 別墅의 空間을 有機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格紫峰에 올라 高低와 向拜를 고려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상 芙蓉洞 別墅의 構成因子는 構造的으로 相關關係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尹孤山은 自然景觀이 수려한 곳과 眺望이 유리한 곳에 空間的 處리를 하고 意味를 부여함으로써 각 空間들이 有機적인 關聯 아래 조화를 이루도록 안배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尹孤山이 經營하였던 芙蓉洞 別墅의 空間構造

의 相關關係를 地形圖를 통해서 分析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발견된다(그림 1 참조).

첫째, 甫吉島의 주요 산봉우리인 格紫峰과 案山, 廣大峰 그리고 북쪽의 山을 一直線 軸으로 하여 線을 연결하면 그 線들이 만나는 中點에 洞天石室이 위치하게 된다.

둘째, 이렇게 해서 中心으로 설정된 洞天石室을 기준점으로 格紫峰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圓을 돌렸을 때 그 원주상에 芙蓉洞의 주요 산봉우리(格紫峰·廣大峰·案山·북쪽의 山)들이 접하게 된다.

셋째, 洞天石室을 中心으로 樂書齋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여 圓을 돌렸을 때 그 안에는 造山·曲水堂·無悶堂·靜成堂 등 生活空間과 休息空間이 조성 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넷째, 洞天石室을 中心으로 樂書齋까지 두 배 되는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圓을 돌렸을 때 甫吉島의 대부분 지역과 藏在島가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洗然亭은 格紫峰과 藏在島를 잇는 軸 그리고 石田臺가 위치한 산봉우리와 洞天石室을 잇는 軸의 延長線이 만나는 점에 그 위치가 설정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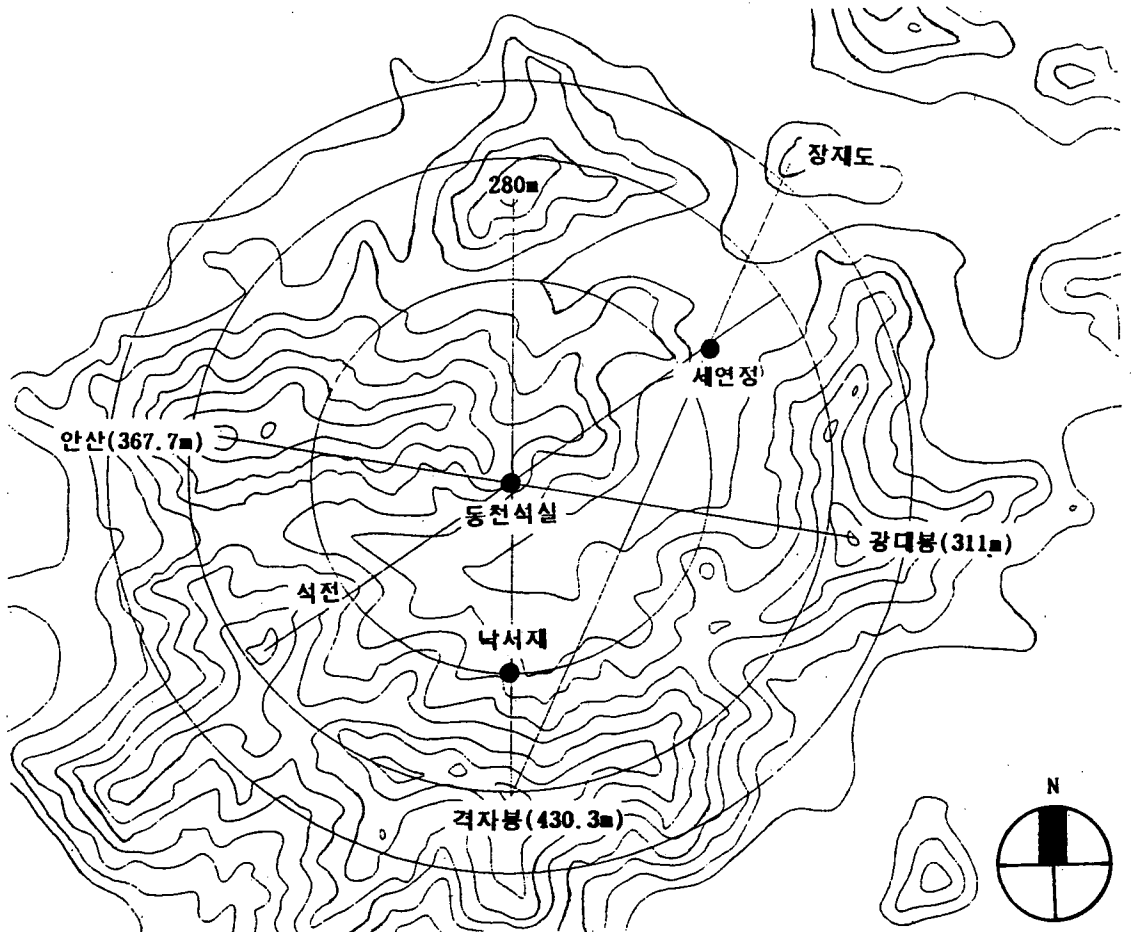
이상의 地形圖를 통한 分析 결과, 芙蓉洞 全領域의 中心은 역시 洞天石室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尹孤山은 이 洞天石室을 中心으로 芙蓉洞 別墅 全領域의 立地를 의도적으로 설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芙蓉洞 全空間이 有機적인 空間造成體系를 가질 수 있도록 조영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芙蓉洞 全領域의 中心이 洞天石室이라는 것은 視覺構造 分析을 통한 景觀認識의 側面에서도 분명히 파악된다. 즉, 마주 보이는 일직선 축상에 格紫峰과 樂書齋와 造山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산등성이에 발이랑같이 생긴 암산인 石田을 볼 수 있고 동쪽으로는 장송이 늘어선 夏寒臺와 赫義臺를 볼 수 있다. 그리고 樂書齋 領域에서 펼쳐진 景觀을 살펴보면 정북쪽에는 거대한

2) 정병헌은 <어부사시사의 배경과 성격>에서 보길도는 세연정과 낙서재 그리고 석실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상세계로 설계되어 있음을 잇구의 제시로 설명하였다. 즉, 가을의 달은 석실에 있어야만 되고 (어부사시사 추사10수), '앞개'와 격자봉의 '뒷뿔'은 상호결합되어 각각의 존재를 포기하고 관계를 맺고있기때문이라고 했다.

암25石과 함께 洞天石室이 마주하고 있고 人工으로 조성한 것 같은 造山도 보인다. 樂書齋 우측으로는 曲水堂과 無悶堂을 내려볼 수 있고 赫羲臺의 끝자락을 볼 수 있다. 한편, 洗然亭 領域에

서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樂書齋가 있는 산기슭이 보이고 멀리 格紫峰이 보이며, 서북 쪽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다.



(1/25,000지형도를 자료로 Auto CAD를 이용하여 작도)

(그림 1) 芙蓉洞 別墅의 空間構造 分析圖

2. 洗然亭 庭園의 性格

1) 人工爲主로 構成된 積極의 空間

洗然亭 領域은 위락기능과 風流的인 行爲가 積極의으로 表現 되어졌던 곳으로 이곳에 가해진 空間構成에서는 尹孤山의 치밀한 공간조작과 構成要素의 人工性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은

空間構成에 있어 비례체계를 도입한다든지, 構造物의 형태 및 규모 등을 對比시킨다거나 風流行爲를 유도하기 위해 構造物을 人工적으로 조성한다든지, 또는 景觀이 유리한 곳에 의도적으로 景觀要素를 도입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였다든지 하는것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 2) 造營觀의 具體的 表現이 이루어진 場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尹孤山은 自然을 客觀적으로 애호하는 것이 아니라 自然과 渾然一體가 되고자 空間을 構成하였다.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理想鄉을 芙蓉洞 別墅에서 自然物의 命名으로 表出하거나 景觀으로 연출하는등 다양하게 形式化하였다.

특히 芙蓉洞 別墅 가운데에서도 尹孤山의 造營觀이 具體적으로 表現되어진 곳은 洗然亭 領域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尹孤山이 노래했던 '五友歌'의 自然形象들을 意圖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理想을 自然 속에서 찾고자 하는 意識의인 行爲가 具體적으로 空間 속에서 表出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3) 風流의 性格의 活動이 일어난 空間

尹孤山은 庭園을 꾸밀 때 風流의 흥이 유발될 수 있도록 空間을 意圖적으로 造營하였으며, 자신의 理想鄉이 積極적으로 表現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정병현, 1988:16) 尹孤山의 이러한 風流의 情緒는 芙蓉洞 別墅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살필 수 있다. 芙蓉洞 別墅 중에서도 특히 洗然亭 庭園에서 일어난 活動은 이것을 더욱 積極적으로 입증하여 주고 있다. 즉, 윤고산은 無悶堂에 居處하면서 아침식사 후 日氣가 淸和하면 반드시 洗然亭 庭園으로 향하였으며,<sup>3)</sup> 四輪車에 풍악을 대동하여 風流를 즐겼다. 또한 尹孤山은 이곳에서 못 중앙에 배를 띄우고 자신이 지은 〈漁父四時詞〉등의 가사를 완만한 음절에 따라 노래를 부르게 하였으며, 堂 위에서는 관현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 명에게 東臺·西臺에서 춤을 추게 하기도 하고 긴 소매 차림으로 玉簫岩에서 춤을 추게도 했을 뿐 아니라 七岩에서 낚시를 드리우기도 하였다.<sup>4)</sup>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尹孤山은 芙蓉洞 別墅의 각 空間 중에서도 洗然亭 庭園에 風流의 性格을 강하게 부여한 것으

로 보인다.

## IV. 洗然亭 庭園의 空間構成 形式과 原理

### 1. 空間의 配置 및 構造

#### 1) 空間의 形成과 中心性

동서양을 막론하고 人間들이 空間을 構成할 때는 제일 먼저 中心을 설정함으로써 場所性을 부여하며, 全空間을 組織化하기 위한 기준점을 마련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中心을 설정하는 것에 특별한 意味를 부여해 왔다.(김용기 외, 1991:87) 다시 말하면 목표[中心點]를 설정함으로써 空間은 안정된 形態로서 조직되고 對象과 人間, 對象과 對象의 相關性을 具體적으로 表現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고정점을 획득함으로써 사람들은 空間上에서 방향성을 확보하고 構造의 秩序를 이룩하게 된다.(김광현 역, 199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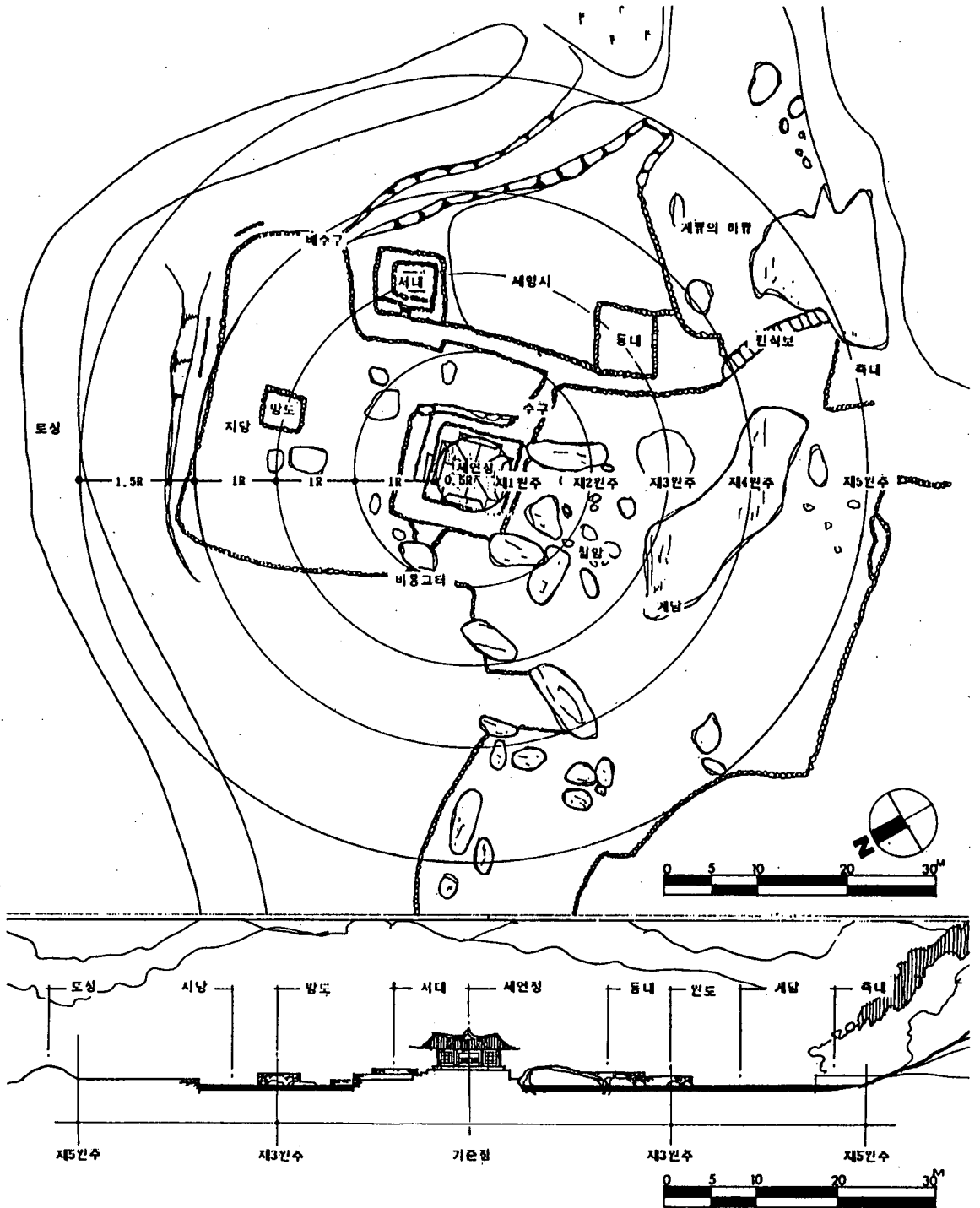
한편, 中心화된 形態란 본래 '求心性'이 內在되는 形態를 意味하고 있다. 즉 어떤 물체가 中心으로서 역할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求心性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고 이것은 부분적인 상세의 취급만이 아닌 주요한 形態가 갖는 기능을 말한다.(김광현 역, 1991:90) 일례로 印度寺院의 原始形인 舍利塔, 즉 스투파(stupa)를 비롯하여 그 후의 차이타야와 비하라사원 등 印度 초기 寺院들은 모두 塔을 中心으로 空間을 構成하였다. 이것은 부처님의 舍利가 봉안된 塔을 대하는 것은 부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意味가 있으며 불교 신앙의 對象物로서 求心性을 지니기 때문이다.(홍광표, 1991:103-104)

결국, 中心은 空間의 求心點을 만듦으로서 주요한 기능을 유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洗然亭 庭園의 空間 配置와 構造에 대한 이해는 우선 이 空間의 中心을 설정함으로써 가능하리라고

3) 而日氣淸和 則必向洗然

4) 置小舫於池中 令童男依綵服 溱舟環廻 以所製漁父水調等詞 緩節而歌 堂上秦絲林 令數人舞於東西臺 或以長衫 舞於玉簫岩影落於池 隔離中節 或垂釣七岩

5) 중심이란 인간의 공간에서 主體를 軸으로 중심화되고 조직화의 수단으로서 설정되며 환경속에서 참조점(point of reference)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말한다.(김광현 역, 1991:34)



(그림 2) 洗然亭 庭園의 空間構成形式 分析圖



보여진다.

## 2) 洗然亭 庭園의 中心

선인들은 理想的인 居住環境을 통하여 자신의 理想郷을 構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空間은 建築物과 주변의 環境을 포함한 고도의 精神的 價値까지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했다. 이러한 경향은 朝鮮時代 士大夫들이 自然을 벗하고, 詩文生活을 즐기기 위해 經營한 別墅라고 하는 독특한 空間을 출현시키게 된다.(한재수, 1985:19) 이 別墅에는 늘 樓와 亭같은 건물이 一次的으로 導入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樓·亭은 園内の 모든 方向에서 眺望되어 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景觀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점경물로 주변의 自然景觀과 융합하여(유병립外, 1989:23) 충분히 求心點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洗然亭이 洗然亭 庭園의 中心임을 現象學的 接近方法<sup>9)</sup>을 동원하여 圖面分析 함으로써 밝혀 낼 수 있었다. 圖面分析 결과, 洗然亭 庭園은 洗然亭을 中心으로 하여 空間構成이 求心的 體系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洗然亭을 中心點으로 作圖한 同心圓周 각각에 洗然亭 庭園의 意味있는 建築線들이 접하고 있고, 이 同心圓은 계속 증첩되면서 외부로 확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洗然亭은 이 庭園의 中心點으로서 다른 空間構成 要素들과 밀접한 相關關係를 형성하고 있으며, 外形의으로는 非整形的인 듯하나 실제로는 洗然亭을 中心으로 整形的 空間 構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洗然亭을 中心點으로 하여 洗然亭 庭園을 分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첫째, 洗然亭 庭園을 中心으로 일정한 比例를 가지고 확산되는 몇 개의 의도적인 同心圓을 作圖했을 때 그 각각의 원주상에는 洗然亭 庭園의 空間構成을 설명할 수 있는 의미있는 人工 構造物들의 中心이나 壇들이 접하고 있다. 여기에서 同心圓의 比例體系는 세연정의 크기를 기준비율 1로 하였을 때, 洗然亭 中心으로부터 洗然亭 지붕

선이 연결되는 제1원주는 기준비율의 1/2, 제1원주로부터 제4원주까지는 기준비율이며, 제4원주로부터 제5원주까지는 기준비율의 1.5배로 결정되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제1원주인 洗然亭이 立地한 中心臺는 七岩이 있는 溪潭과 方島가 있는 池塘을 사이에 두고 人工的으로 조성된 하나의 섬이며, 洗然亭으로 진입되는 수단으로써 조성된 두 개의 다리는 洗然亭을 中心으로 작도된 제2원주 상에 그 끝선이 결정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洗然亭을 中心으로 작도한 제3원주상에는 東臺와 西臺 그리고 方島의 中心點이 결정되어 졌다.

넷째, 제4원주상에는 板石狀의 서쪽 끝단과 池塘의 북서측 끝단이 접하고 있다.

다섯째, 마지막 원주인 제 5원주상에는 溪潭의 境界부와 東臺와 西臺가 있는 梯形地의 끝부분 그리고 土城의 단이 접하고 있다.

## 2 空間構成原理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空間構成의 특징은 空間 속에 여백이 많고 앞이 트여서 답답하지 않으며 園内に 潭·花階·池塘 등 直線的이며 幾何學的인 要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自然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다는데 있다. 이러한 傳統的인 氛圍氣를 지니고 있는 洗然亭 庭園 역시 일정한 법칙 속에서 美的 表現의 原理를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앞절에서는 洗然亭 庭園의 配置와 構造를 中心性의 具顯이라는 측면에서 分析한 결과 洗然亭 庭園이 몇가지 법칙성을 가지고 空間構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洗然亭 庭園은 그러한 법칙성을 토대로 空間構成의 形式이 결정되었으며, 그 形式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構成의 原理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여기에서 現象學的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研究方法가 어떠한 사물의 현상에 대해서 總體的인 접근을 한다는 점, 非可視的인 것뿐 아니라 可視的인 것도 分析의 對象을 한다는 점(임승빈, 1991:175-200)점에서 現象의 本質에 접근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1) 階層的 秩序의 具顯

圖面 分析을 통해 나타난 洗然亭 庭園의 空間 構成 原理 중 하나인 階層的 秩序의 具顯에 대한 具體的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同心圓이 外延으로 확장되면서 中心 活動에 대한 지원기능이 약해진다. 즉, 제1원주의 中心인 洗然亭은 四方으로 開放되어 視知覺의 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여 주변의 自然을 광범위하게 감상하며 시를 짓거나 휴식을 취하는 風流의 場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2원주 안의 東臺·西臺·池塘·溪潭의 領域에는 기녀들이 춤을 추거나 풍악이 울리기도 하고 배를 띄워 뱃놀이 하고 낚시를 하는 등의 행위를 부여하였다. 한편, 제4원주안의 옥소대가 있는 남쪽의 산이나 溪潭의 주변과 池塘의 주변은 소요를 하거나 洗然亭으로 출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즉, 尹孤山은 洗然亭 庭園의 造營과정에서 洗然亭이 中心的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외부의 圓에 포함되는 要素들이 洗然亭이 지닌 기능을 보조하거나 유도하도록 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洗然亭 庭園은 空間體積으로서 階層的 秩序를 느낄 수 있도록 각각의 單位 外部空間이 가진 機能의 중요도에 맞추어 同心圓上의 외곽으로부터 中心空間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장되어 가다가 中心空間에도달하게 되면 視知覺의 으로 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정리되면서 극적 효과를 유발시키는 기법이 적용되었다. 이것은 특히 人工의 으로 축조한 臺의 規模에서 확연히 나타나는데 洗然亭이 위치한 中心臺는 주변의 東臺·西臺의 規模에 비해서 평면적으로 크게 조성된 것 등이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무리없는 地面의 上昇은 主空間의 空間 感을 충실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要素로서 地面의 上昇에 따라 空間 知覺에 있어 階層性이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自然地形의 傾斜度에 따라서 또는 單位 진입과정상 空間의 性格에 따라서 階段이나 傾斜處理를 함으로서 달성하게 된다.(정무용,1984:64-65)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洗然亭 庭園은 대체로 平地에 가깝기

때문에 臺를 쌓아 그 空間의 階層的 秩序를 具顯했음을 볼 수 있다. 즉 洗然亭은 板石湫(1m)나 池塘 속의 方島(1.2m), 그리고 東臺(1.2m-2m)와 西臺(1.8m-2.3m)보다 높게 축조함으로써 視覺的 階層性을 느낄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洗然亭 庭園의 諸空間은 人爲的으로 地形의 高低를 조절함으로써 階層的 秩序를 具顯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중요한 것은 정밀한 것이어야 한다는 일상적인 관념이 있다.(정무용,1984:69) 이러한 개념 역시 階層的 秩序를 부여하는 具體的인 手段으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이 洗然亭 庭園 역시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에 따라 階層的 秩序를 具顯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洗然亭 庭園의 경우 다른 構造物에 비해 中心이 되는 洗然亭이나 洗然亭이 입지한 中心臺를 치밀하고 정교하게 장식하고 있음은 이러한 이유로 보여진다.

다섯째, 階層的 秩序는 人工的인 것과 自然要素에 대한 知覺經驗의 반복·변화 또는 意圖的인 優越性[自然要素]의 강조를 통해서도 획득된다. 洗然亭 庭園의 空間構成을 分析한 圖面上에도 이러한 自然要素와 人工要素의 반복적 구성이 洗然亭을 中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면, 洗然亭을 中心으로 圓의 외곽부에 山과 土城·溪潭과 池塘 등의 自然과 人工의 要素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圓의 轉移過程에 東臺·西臺·方島등의 人工要素가 동북쪽의 원주안에 위치하며 自然要素인 七岩들과 岩石들이 서남쪽의 원주안에 놓이게 되는 점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要素들은 洗然亭 中心에서 總體的인 知覺的 經驗의 변화와 반복을 유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洗然亭이 具體的인 中心으로서 表現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섯째, 洗然亭 庭園의 中心은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接近過程의 階層性을 획득하는 방법을 통하여 秩序를 具顯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념은 通路의 機能을 담당하는 동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동선은 두 개의 領域을 연결하고 또 두 개의 방향을 포함하면서 보통 動的인 均衡의 狀態를 강하게 느끼게

한다. 뿐만아니라 出發과 到着이라는 두 가지 운동으로 空間을 내부와 외부라는 두 개의 同心圓上の 領域으로 분할되게 된다.(김광현 譯, 1991: 49-55)

이러한 관점에서 洗然亭 庭園을 살펴보면, 제1원주상에는 飛虹橋와 洗然亭 동쪽다리(洗然亭과 梯形地를 연결하는 다리)가 위치해 있는데, 이 다리들을 건너야만 洗然亭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제3원주 상에서 板石狀와 池塘의 排水口, 池塘의 境界가 자리하는데 이것은 轉移空間의 性格을 지니며 이곳과 저곳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제4원주 상에는 溪潭의 경계부와 梯形地 끝부분과 土城 등이 놓여 실질적으로 洗然亭 庭園의 領域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意圖의으로 梯形地 끝부분과 土城 끝부분을 이 원주상에 놓고자 했음이 엿보인다. 결국 洗然亭 庭園은 이러한 通路를 통해서 階層의 秩序를 具顯하고 있다.

## 2) 自然과 人工의 調和追求

洗然亭 庭園은 洗然亭을 축으로 북쪽은 人工성이 강한 領域, 남쪽은 自然성이 짙은 領域으로 구분되고 있다. 여기에서 人工성이 강한 領域은 東臺·西臺·池塘·方島 그리고 土城을 포함하는 領域이고 自然성이 짙은 領域은 溪潭과 圓島 그리고 남쪽산을 포함하는 領域이다. 洗然亭 庭園은 自然과 人工으로 명확히 구분된 듯 보이나, 人工성이 강한 領域에 自然이 관입되고 自然성이 강한 領域에 人工이 貫入됨으로써 相互調和를 이루고 있다. 즉, 洗然亭 庭園의 경계/구분의 역할을 하는 築潭·溪潭 그리고 다리는 주변에 산재한 암석이나 암석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洗然亭이 있는 方端의 모서리 부분에 박힌 커다란 암석은 洗然亭이 人工構造物임에도 불구하고 암반위에 조성한 亭子처럼 보이게 한다. 또 水景의 측면에서 보면 人爲의으로 조성된 池塘의 물은 자연스럽게 溪流의 上流에서 흘러내려와 溪潭에 저수되고 池塘으로 유입되어 溪流의 流水와는 대조적인 止水로서 분위

기를 자연스럽게 만든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自然과 人工이 調和를 이루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空間 構成要素들의 자연스러운 配置 역시 自然과 人工의 調和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洗然亭 庭園의 池塘안의 바위들은 자연스럽게 方島 주위에 널려 있고, 溪潭에는 七岩들이 군집되어 있어 洗然亭 庭園의 전체적인 霧圍氣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洗然亭을 中心으로 池塘과 溪潭, 圓島와 方島는 대칭되게 配置되어 있는데, 이것은 自然 地形地勢에 따라 조성된 溪潭과 圓島를 고려하여 池塘과 方島를 디자인 측면에서 均衡을 이루고자 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또 洗然亭 庭園은 남쪽 산에 의해 自然的 境界가 이루어져 있고 人工의으로 領域을 표시하고자 쌓은 土城은 이러한 自然 形態를 빌어 유사하게 盛土한 것으로 보여진다.

## 3) 人間尺度의 規模設定

人間尺度는 크기 자체가 너무 커서는 안되며 관찰지점으로 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익숙한 規模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더불어 空間은 그 자체가 均衡있고 比例를 유지하는 調和性을 지니게 된다면 人間の 尺度에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다.(임승빈, 1988: 184-185) 한편, 視覺에 의한 遠距離 概念은 空間에서 물건의 配置·配列의 知覺과 判別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洗然亭 庭園의 空間 規模와 構造는 人間尺度의 立場에서 造營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특히 洗然亭 中心은 東臺·西臺·方島의 中心과 視覺的 聽覺의으로 편안한 거리<sup>7)</sup>인 일정한 원주상에 놓여 있음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洗然亭 庭園은 尹孤山이 洗然亭에서 지시하는 內容이 東臺와 西臺에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수평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東臺와 西臺에서 춤추는 舞姬들의 자태를 유리한 위치에서 감상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

7) K.Lynch는 인간관계가 쾌적하게 유지되는 범위를 1-3m, 옥외친근감의 거리를 12-24m라고 했는데, 세연정중심에서 21m되는 원주상에 동대와 서대 방도의 중심이 놓이므로 친근감을 주는 거리에 위치함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원주 안으로 溪潭의 七岩과 圓島, 池塘의 方島와 岩石 등 景觀要素들이 밀집되어 洗然亭에서 편안하게 많은 것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視知覺의 側面에서 洗然亭을 中心으로하는 近景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溪潭의 境界와 土城을 접하고 있는 제5원주는 일반적으로 住宅의 담과 같은 기능을 하는 中景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를 벗어난 산들의 모습이나 바다는 遠景的 要素로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象徵性的 具體的 表現

尹孤山은 그가 ‘漁父四時詞’에서 追求한 바와 같이 理想的인 景觀을 洗然亭 庭園에 옮기고자 했으며 이곳에서 연출되는 아름다운 春夏秋冬의 景觀性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理想化하고자 했다. 또한, 尹孤山은 ‘五友歌’에서 表現했던 것처럼 自然의 形象을 洗然亭 庭園의 空間 構成要素로서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예를 통해서 입증 가능하다. 우선 尹孤山이 甫吉島에 정착하게 된 決定的 要素가 바다였고 이것은 윤고산으로 하여금 육지에의 끊임없는 鄉愁와 絶望 苦行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心理的 距離를 확보함으로써 敗北意識에서 자유로와 질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정병헌, 1988 : 2) 윤고산이 지닌 이러한 意識은 洗然亭 庭園의 空間構成에도 延長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池塘의 方島에 있는 소나무가 그 단적인 예이다. ‘五友歌’에서 尹孤山이 소나무의 뿌리 깊음과 隱逸士의 象徵으로 표현 하였듯이 方島에 소나무를 植栽한 것은 자신의 절개와 늘푸른 청정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表現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제방에 山茶와 영산홍을 심어 봄이면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고 푸른 이끼 또한 하나의 비단철을 이루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일정한 계절이 되어야 꽃이 피고 시간이 지나면 화려했던 꽃잎들이 떨어지는 광경으로 늘푸른 소나무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池塘의 方島에 심은 것은 육지에서 떨어진 甫吉島를 象徵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方島 위의 소나무<sup>9)</sup>는 尹孤山 자신을 象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方島와 東臺·西臺의 中心은 洗然亭의 中心에서 일정한 거리의 원주상에 놓이게 되는데 이들 원주상에 있는 構造物들은 모두 方形이다. 즉 圓形的 圖形위에 方形의 構造物이 조성되어 보다 구체적으로 求心性을 表現하고 있다. 옛부터 中國을 비롯한 많은 古代國家에서 世界는 圓뎀만 아니라 方形으로 表現되기도 하였고 圓의 神秘를 地上에 表現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圓은 하늘의 精神世界를 象徵하고 正方形은 地上의 物質 世界를 象徵한다고 하였다. 또한 方形은 地上과 관계된 象徵, 肉體와 現實과 관계된 象徵이기도 하다 (Jung, 1982 : 298).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方島·西臺·東臺는 現實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構造物로서 그것들이 同心圓上의 中心에 위치한 洗然亭을 향하여 求心的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은 洗然亭領域이 理想的 世界를 現實世界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具體化 手段으로 보여진다. 특히 洗然亭에 걸려 있었다는 扁額詩를 보면 이곳이 한낱 호사스러운 遊宴의 場所만이 아닌 선비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곳을 시사하고 있음으로 여겨진다.

한편, 尹孤山은 洗然亭의 領域을 표시하는 부분에 人工的으로 土城을 쌓아 竹林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洗然亭 庭園의 領域 표시는 물론 防風林의 구실도 하지만 무엇보다 신성함을 具體的으로 表現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尹孤山이 〈五友歌〉에서도 노래했듯이 竹을 人間社會의 功名이나 功業에 마음을 두지않는 虛心人間으로 自己 心象의 具體的 表象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洗然亭의 命名에서도 보았듯이 이곳이 청정한 선비의 세계임을 암시하는 수단으로 竹林을 조성하여 具體化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尹孤山은 〈五友歌〉에서 自然無爲의 실천

8) 環以短堤 皆植山茶映山紅 春花亂落 青苔作一錦地

9) 芙蓉洞 八景 中的 하나로 然唐孤松

자로 石을 표현했었는데 洗然亭 庭園 곳곳에 널려 있는 바위의 命名에서도 그 의지를 살필 수가 있다. 이러한 예로 溪潭 안의 七岩 중 “或躍岩은 펴 듯 하면서도 아직 뛰지않고 있다”는 〈易經〉의 乾에 나오는 ‘或躍在淵’이라는 시구에서 취한 命名으로 당시의 정세에서 난세를 수습할 인걸을 기대하며 命名했던 것으로 보여진다.(정재훈, 1991: 25)

이상과 같이 尹孤山은 理想的인 空間을 찾기 위한 노력과 발견된 空間을 理想的으로 配置하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즉, 이 모든 空間이 그의 엄정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自然이기에 尹孤山 자신과 밀착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조각에서 의해서만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自然 위에서 自然과의 親密感을 읊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尹孤山은 자신이 沒入할 수 있는 自然을 ‘漁父四時詞’에서 추구하면서 洗然亭 庭園에서는 이에 대한 具體的인 表現으로서 空間을 象徴的으로 조성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 V. 結 論

芙蓉洞 別墅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尹孤山의 自然探求를 통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各 領域 및 空間들은 構造的으로 相關關係를 이루며 有機的으로 조성되어 있다. 한편, 芙蓉洞 別墅의 全領域 중에서도 洗然亭 庭園은 空間構成에 있어서의 비례체계의 도입, 構造物의 형태 및 규모 등의 對比, 風流行爲를 유도하기 위한 人工構造物 조성 그리고 시각적 체험이 유리한 곳에 의도적으로 도입한 景觀要素들을 통해 尹孤山의 造形觀이 표상화 된 공간이었으며, 각별히 人工性이 강조된 積極的 空間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洗然亭 庭園은 尹孤山이 ‘五友歌’에서 노래했던 自然形象을 意圖的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理想을 自然속에

서 찾고자 하는 造營觀이 具體的으로 表現되어진 곳이기도 하다. 한편, 洗然亭 庭園은 風流의 흥을 돋우기위해 이곳에 風流行爲를 담을 수 있는 시설물들을 도입하였고, 尹孤山은 風流空間으로서의 性格을 洗然亭 庭園에 강하게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洗然亭 庭園은 중국의 화가 郭熙의 “林泉鼓吹”에서 말한 山水 四品格<sup>10)</sup>을 만족시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洗然亭은 洗然亭 庭園을 空間的으로 組織化하게 되는 求心點이었으며, 洗然亭 庭園은 이 洗然亭을 中心으로 정형적 空間構成을 하고있음을 圖面分析 결과 알 수 있었다. 또한 洗然亭庭園에서는 階層의 秩序의 具顯, 人工과 自然의 調和, 人間尺度的 規模의 設定, 景觀 象徴性的 具體的으로 表現등과 같은 空間構成原理가 적용되었음을 現象學的인 解釋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尹孤山은 洗然亭 庭園에 그 자신의 확고한 디자인 원리를 적용시킴으로서 그가 추구하는 理想的인 空間을 창출하였으며 自然과 혼연일체 되고자 했던 그의 조영의지를 實現시켰음을 본 研究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 引用 文 獻

1. 강종철, 박형철(1992) 「觀光 甫吉島」, 도서출판 한림.
2. 김용기, 홍광표(1991) “土舍山 佛國寺의 景觀象徴性에 관한 研究”, 『韓國造景學會誌』, 19(1).
3. 김준호(1987) 「孤山 尹善道の 隱逸思想考察」, 朝鮮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4. 문영우(1983) 「孤山尹善道 研究」, 태학사.
5. 박언곤(1989) 「韓國의 亭子」, 대원사.
6. 박준규(1988) “孤山の 漢詩 研究”, 『孤山文化遺蹟調查 報告書』, 孤山研究會, 全南大學出版部.
7. 송화진(1988) “甫吉島 地名調查 研究”, 『孤山文化遺蹟 調查報告書』, 孤山研究會, 全南大學出版部.
8. 신상섭(1991) 「傳統住居의 外部景觀 構成體系에 관하여」, 高麗大 大學院 博士 學位論文.

10) 1. 한번 지나쳐 볼 만한것(可行)－원로를 만들어 소요

2. 멀리 바라 볼만 한것 (可望)－정자를 두어 조망

3. 한가롭게 유람해 볼 만 한것(可遊)－지당과 루각을 만들어 놀이

4. 거기서 살아볼만한것(可居)－處堂을 지어 머물며 살게함

9. 안계복(1990) “韓國의 樓亭樣式上 諸特性 및 計劃理論에 관한 研究”, 韓國造景學會誌, 19(2).
10. \_\_\_\_\_(1989) 「樓閣 및 亭子樣式을 통한 韓國傳統庭園의 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대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1. 양병이(1992) “韓國傳統造景의 類型別 特徵” 「韓國傳統造景」, 도서출판 조경.
12. 유병림의2인(1989) 「朝鮮朝庭園의 原型」, 서울대환경대학원부설 환경계획연구소.
13. 윤우선(1977) “甫吉島의 孤山 遺蹟과 漁父四詩詞의 背景詩論”, 湖南文化研究集, 全南大文化研究院.
14. 이경자(1983) 「山中新曲論」, 漢陽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5. 이숙진(1987) 「돌과 물에 대한 景觀觀이 傳統庭園에 미친 影響」, 漢陽大環境科學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6. 이정년(1985), “甫吉島識 번역”, 「계간조경」, 제8호.
17. 이재근(1991) 「朝鮮時代 別墅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8. 임승빈(1988) 「環境心理行態論」, 보성문화사.
19. \_\_\_\_\_(1991) 「景觀分析論」, 서울대출판부.
20. 정기호(1991) “景觀에 內在된 內容과 形式”, 韓國造景學會誌, 19(2).
21. 정동오(1988) “孤山 尹善道の 別墅生活과 芙蓉洞 園林의 池塘에 대한 考察”, 「孤山文化遺蹟調查報告書」, 孤山 研究會, 全南大學出版部.
22. \_\_\_\_\_(1992) “尹善道の 芙蓉洞 園林(別墅苑)”, 「東洋造景文化史」, 全南大學校 出版部.
23. 정무웅(1984) 「韓國建築外部空間의 階層的 秩序에 관한 研究」, 弘益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4. 정병현(1988) “漁父四詩詞의 背景과 性格”, 「孤山遺蹟調查報告書」, 孤山 研究會 全南大學出版部.
25. 정세훈의(1981) 「甫吉島 尹孤山 遺蹟調查報告書」, 완도군.
26. 정익섭(1983) “歌辭와 風流致”, 「東岳語文論集」, 17.
27. \_\_\_\_\_(1987) “孤山尹善道の 人物과 思想”, 「錦湖文化」, 25, 금호출판사.
28. 정재훈(1985) 「甫吉島 尹孤山 遺蹟」, 문화재관리국.
29. \_\_\_\_\_(1991) 「甫吉島 芙蓉洞 園林」, 열화당.
30. 정하광(1991) “景觀 概念語 使用方向 設定”, 韓國造景學會誌, 19(1).
31. 진희성, 노재현(1990) “八景의 意味體驗에 따른 風景概念의 構造에 관한 研究”, 韓國造景學會誌, 19(1).
32. 최광락(1988) 「景觀속에 內在하는 一般原理로서 求心性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33. 최기수(1989)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景觀 構造의 解釋에 관한 研究」, 漢陽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34. 최진원(1966) “尹孤山의 自然觀”, 「現代文學」, 10, 현대문학사.
35. \_\_\_\_\_(1986) 「國文學과 自然」, 성대출판사.
36. 한재수(1985) “별서 소재원에 표상된 자연현상의 건축미학적 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9(125).
37. 홍광표(1991) 「新羅寺刹의 空間形式變化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38. Ashihara, Y.(1970) *Exterior Desing in Architecture*; 김정동譯(1989) 「建築의 外部空間」, 기문당.
39. Norbeng-Schulz, C.(1971) *Existance, space and Architecture*; 김광현譯(1991) 「實存, 空間, 建築」, 태림문화사.
40. Hartman, N.(1953) *Artistic*; 전원배譯(1974) 「美學」, 을유문화사.